

2009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영역 •

정답

1	5	2	4	3	4	4	1	5	3
6	4	7	3	8	4	9	4	10	5
11	2	12	5	13	3	14	1	15	1
16	1	17	1	18	3	19	1	20	2
21	2	22	5	23	5	24	4	25	2
26	4	27	5	28	5	29	4	30	4
31	1	32	2	33	2	34	2	35	3
36	3	37	2	38	3	39	2	40	1
41	3	42	5	43	4	44	2	45	1
46	1	47	4	48	3	49	5	50	3

해설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원시 평화동의 김행복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지하철에서 본 일입니다. 다리를 저는 늙은 걸인이 내가 타고 있는 칸으로 넘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던 나는 귀찮은 생각이 들어 걸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걸인은 맞은편에 얼마와 같이 앉아 있던 대어섯 살 가량의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구걸을 하는 것이었지만, 언뜻 보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걸인의 더럽고 거친 손에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걸인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열른 내린 손을 다시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영겨주춤 일어나더니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걸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걸인은 잠시 당황하더니 여자아이의 작고 흰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여자아이의 얼굴에 피어 오른 미소를 보며 마치 천사가 지친 인간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켈렷했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의 여자아이가 따뜻하게 잡은 손은 더럽고 거친 걸인의 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잡지 않아 하얗게 얼어 버린 내 마음의 손에도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너는 오늘 누구의 손을 잡았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들은 청취자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연의 주인공이 '걸인'이나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 지닌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버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번에는 수업의 일부를 들게 된다.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를 이,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이 그림에 주목해 보세요. 이 그림은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신뢰'라는 작품이에요. 먼저 누가 이 그림에 대한 인상을 말해볼까요? (사이) 그래 한별이.

한별(남): 문계구름이 퍼져있는 하늘과 넓은 평원을 배경으로 정장을 입은 신사가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사의 코앞에는 허공을 떠다니다 멈춘 듯한 담배 파이프가 놓여 있는데요.

선생님: 지선님이 이 그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지선(여): 예. 상식적으로 추구공은 운동장에, 차는 도로에 있어야 하듯이 담배 파이프는 손이나 입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허공에 머물러 있어서 괜히 낯설고 이상해요.

선생님: 맞아요. 지선이 말처럼 평범한 인물이 될 뻔한 이 그림이 상식에 어긋난 배치로 인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하곤 했는데 이를 '데페이즈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그리트의 작품을 보고 그랬듯이 '데페이즈망' 기법은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죠.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은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상식과 이성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깨우쳐 줍니다. 또한 상식과 이성으로 인해 굳게 닫힌 생각의 문을 열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이성과 상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을 감상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들려 드립니다. 다음 중,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제대로 답한 학생은?

- 첫 번째 학생: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해 당대의 사회 현실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 두 번째 학생: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배치하는지 그 숨은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세 번째 학생: 마그리트의 삶을 조사해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추리해 봐야 합니다.
- 네 번째 학생: 고정관념을 깬 발상의 의도를 각자가 자유롭게 상상해 봐야 합니다.
- 다섯 번째 학생: 신사와 담배 파이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2. [출제의도] 들려준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생님은 '데페이즈망' 기법이 상식과 이성으로 인해 굳게 닫힌 생각의 문을 열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데페이즈망 기법이 사용된 마그리트의 '신뢰'라는 작품을 볼 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떠올릴 수 있다.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달이 태양을 먹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려 태양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해 일(日)자'에 '좀먹을 식(蝕)'자를 써서 '일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일직선상에 달이 놓이게 되면 지구에는 달의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본 그림자 안에 관측자가 있으면 태양이 달에 전부 가려져 관측자는 태양을 완전히 볼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태양이 사라지는 멋진 우주 쇼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본 그림자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는 반그림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약 80% 정도만 달에 가려지는 부분일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달보다 400배 정도 크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달까지의 거리보다 400배 정도 멀기 때문에 작은 달이 큰 태양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지구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달이 태양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공전 궤도를 돌게 되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게 되어 금가락지모양의 일식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천만 년이 지나면 이러한 개기일식

현상을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로부터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에서 달은 지구로부터 매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식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달이 지구와 멀어지면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멀어지면 오히려 달이 태양을 더 많이 가릴 수 있게 되므로 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추리는 잘못된 것이 된다.

[오답풀이] ③ 본 그림자와 반그림자는 지구에 생기는 달의 그림자라고 하였으므로 달의 공전궤도에 따라 달의 그림자 위치도 변하게 될 것이다. 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지구와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4~5] 이번에는 '곤충 산업'에 대한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 산업! 오늘은 곤충 산업 연구소 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박사(남):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곤충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요?

최 박사: 곤충과 산업. 낯선 묶음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곤충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곤충 산업'은 양봉이나 양잠처럼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산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꿀벌이나 누에 외에, 어떤 곤충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최 박사: 학습 애완용 곤충 시장의 장수풍뎡이와 사슴벌레,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나비, 약용 자원으로 연구되고 있는 굼벵이, 그리고 화분 매개 곤충 및 천적 곤충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창기입니다.

사회자: 우리나라도 곤충 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국내 곤충 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최 박사: 곤충을 이용한 무궁해 농법을 실시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이미 3%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 산업 규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섰고, 학습 애완 곤충 시장은 400억 원 이상, '나비 축제'로 대표되는 관광 산업 분야도 500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그림 대략 2,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군요.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크네요.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 박사: 저희 연구소에서는 환경 정화에 곤충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똥애똥'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 등을 유기물로 분해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곤충의 부화 및 증식, 사육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환경 정화라는 새로운 곤충 산업 영역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곤충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5년까지 농업 관련 시장이 3,000억 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곤충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곤충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재정적인 지원 또한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출제의도] 인터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전부터 꿀벌을 통한 양봉, 누에를 이용한 양잠 등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곤충산업이 최근 들어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말하는는 어렵다.
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자는 첫 번째 질문에서 곤충 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⑤)한 후, 다음 질문에서 곤충의 종류와 활용 방식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②).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④)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에는 전망과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①). 통계 자료를 제시한 것은 사회자가 아니라 최 박사이다.(③)
6.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 올바른 연상 내용은 '학습한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정리한다.' 또는 '학습 태도를 반성하며 보다 나은 학습 태도를 생각한다.'가 적절하다. 또한 이러한 학습 태도는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부합하는 글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역설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문장은 급훈의 핵심 내용인 '꿈을 가져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상을 위해 쉽 것이 설계를 그려나가는 비유적 모습으로 표현했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운동 부족이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자료와 '선진국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높다'는 자료 사이에서는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③ 한의사가 운동 부족과 자동차의 이용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성인병 환자의 증가와 자동차 수의 증가는 관련이 있다.
9. [출제의도] 적절하게 개요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II-2-가'의 'NGO 간 교류 부족으로 같은 분야에서의 활동 증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다. 그런데 '재정 독립을 위한 방안 마련'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정한 '바람직한 조직 문화의 형성'도 역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가 적절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맥상 ㉔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따라서', '그러므로' 등을 사용해야 한다.
11. [출제의도] 명사형 어미와 접미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 1>의 내용을 보면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고,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다. <보기 2>의 나에서 '잠1'은 서술성이 없고 '잠2'는 서술성이 있다. 그러므로 '잠1'의 '-ㅁ'은 접미사이고, '잠2'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12. [출제의도] 순우리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빈칸에는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 적절하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순우리말 중에서 이에 적합한 말은 없다. 빈칸에 적절한 말은 '호드러진'이다.
- [13~16] (교전소설) 작자 미상, '홍계월전'
13.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 계월이 남편이 될 보국을 회몽하는 장면에서 보국이 애첩 영춘에 빠져 있는 것도 꾸짖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황제는 계월의 문제를 혼자 처리하고 있다. ② 환관을 통해 글과 담장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특정 소재가 갖는 서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A]에서 계월은 자신이 황제를 속이고 남자로 행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벌을 받겠다고 한다. [A]의 앞 장면에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하면, 남자로서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것은 [A]와 무관한 설명이다.
1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국은 자신이 계월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여공에게 말한다. 이에 [B]에서 여공은 계월이 결혼 전에 상관으로서 보국을 골려 먹었다는 의도가 군사 사열에 숨어있음을 간파하고, 아들에게 끼리고 미워하지 말 것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계월은 '가'와 같은 심리, 보국은 '라'와 같은 심리가 담겨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행위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계월이 여자로서의 사회적 한계를 인식하고 분노 습으로 돌아가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 [17~20] (현대시) (가) 김남조, '겨울 바다' / (나) 신경림, '동해 바다 -후포에서' / (다) 허영만, '늑을 닮으며 -공초14'
17.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인고(忍苦)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느그렇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다)에서는 혼신의 힘으로 살아온 마흔세 해 등 과거의 삶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으나 (가)에서는 과거의 모습이 없다.
18. [출제의도]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바다는 '보고 싶던 새'를 볼 수 없었던 절망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깨달음의 바다로 전환된다. (나)의 2연의 '바다처럼'이라는 시어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닮기를 희망하는 대상이다.
19. [출제의도] 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원인(기도를 끝내면) - 결과(문이 열린다)'의 구조가 아니라, 계속 심화되는 구조이다. 화자는 절망을 극복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자 더욱 뜨거운 기도를 이어가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시를 감상한 내용이 적절한가를 묻는

- 문제이다.  
(다)의 '어두운 생명 저편'은 삶을 마치고 죽는 순간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부끄럽고 죄스러운 과거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 [21~24] (인문) 강영계, '철학 이야기'
21.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개별 현상들에서 동일한 개념을 발견하려고 한 것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경험주의이다.
22. [출제의도] 경험주의 방법론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한정된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전체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귀납법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㉕도 내가 맛 본 사과의 경험을 사과 전체의 맛으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칸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합리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거미형 학자'는 이 글의 합리주의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칸트는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만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자에게 칸트는, 내용인 외부의 감각 경험과 형식인 오성을 갖추어야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할 것이다.
24. [출제의도] 조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파'는 비교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되었다.
- [25~28] (현대소설) 박완서, '우황청심환'
25. [출제의도] 표현 방식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언어유희를 이용한 해학적 표현이 없다.  
[오답풀이] ①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A] 부분에서는 '남궁 씨'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④ 매일 친척들을 방문하여 보살피고, 겨울옷을 사다 입히고, 유행이 지난 한옷이나 화장품을 가져다 주는 '남궁 씨'의 행위를 나열하여 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6. [출제의도] 표현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내는 아무리 아버지라도 '남궁 씨'가 대학생인 '둘째아들'을 망종이라고 탓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이고, '남궁 씨'와 '둘째아들'의 대립을 중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어느 쪽을 더 신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다.
27. [출제의도] 작중 상황과 등장인물들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변 친척'은 '복조선'의 처가 식구들을 돕고 왔지만, '남궁 씨'에게는 도움을 받으므로 입장이 반대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궁 씨'가 '아내'처럼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문맥에 적절한 속담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궁 씨'는 실업자로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연변 친척'을 돕는 것으로 소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에는 직장도 없고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할 일도 없는 상태이다. ㉔은 '의지할 대가 없는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남궁 씨'의 처지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애써 잡았다가 놓치고 나서 험악하며 분해하는 모습을 비유. ② 잘난 체하다가 편잔을 맞고 무안하여 말없이 있는 사람을 비유.

[29 ~ 32] (예술) 김병역, '디자인 개론'

29. [출제의도]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느 한 쪽을 지배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는 우세를 사용하려면 대비나 집중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풀이] ③ 어떠한 경우에도 강조의 중심점은 하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주변 대상들에게서 시선이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내용 및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조의 원리가 반영된 구체적인 디자인 작품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⑤ 이 글은 전체적으로 대비, 집중, 우세의 개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대비를 양적 대비와 질적 대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대비의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필요에 따라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

3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는 '남의 관심 따위를 쏠리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시간이나 일을 늦추거나 미루다. ③ 이렇다. ④ 어떤 사실이나 글을 옮겨 오거나 옮겨 가다. ⑤ 어느 곳에 이르도록 늘이다.

32.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대비, 집중, 우세의 방법이 모두 사용되었다. 'YES'와 'no'가 의미상 대비를 이루고 있고, 모든 요소들이 방식을 통해 'YES'로 집중되고 있으며, 'YES'와 'no'가 주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직선과 원의 대비만 나타나 있다. ③ 명암의 대비만 나타나 있다. ④ 같은 문자들이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모이는 집중만 나타나 있다. ⑤ 점점 원의 크기가 줄어드는 점미를 통한 집중만 나타나 있다.

[33 ~ 35] (기술) 이창희, 'OLED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33. [출제의도]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서 OLED의 개념(①)과 구조(④)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단에서 그 원리(③)를, 끝 문단에서 장단점(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OLED의 종류(②)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통해 OLED에서 양극 쪽이 정공주입층(㉠), 음극 쪽이 전자주입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공수송층(㉢)-발광층(㉣)-전자수송층(㉤)이 내부에 배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문단에서 전자가 발광층에서 정공과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에 의해 빛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 ㉡와 ㉢는 주입층으로, 정공과 전자를 방출하지 않으며 빛의 세기 여부와도 상관없다.

3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LCD와 비교할 때, OLED의 장점은 발광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

얇고 가벼워질 수 있으며, 전력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타당한 이유가 된다.

[36 ~ 40] (수필시가복합) (가) 이침, '원수(原水) / (나) 이색, '부벽루(浮碧樓)' / (다) 작자 미상, '관동가(觀燈歌)' (출전 - 임기중, 필사본 역대가사문학전집)

36.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는 영원한 자연(구름, 산, 강)과 유한한 인간사(명 빈 성)를 대조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소년들의 모습 및 화려한 만물의 모습과 부채하는 임을 대조해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물의 근원을 아는가.',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상식적 개념(통념)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38. [출제의도] 자료를 적용하여 시구를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조각담'은 퇴락한 부벽루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낀 쓸쓸한 심정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소재로, 고구려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역설적 발상에 의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하고 소상강 거러기는 가노라 하직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우리 님은 어디 가고~할 줄 모르는고'를 반복하며 달을 구분하고 있다. ④ 여러 가지 연등을 나열하면서 관동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잔디 잔디 속입 나니 만물이 화려한데', '이화 도화 만발하고 행와 방초 출날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시조를 창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은 감탄사이고, (나)의 ㉡에 나타난 감각은 시각이다. 그리고 (다)의 주제는 부채하는 일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다. ①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제시하고, 시각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채하는 일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 44] (사회) 김철환, '소비자이익과 생산자이익'

41.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소비자이익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부여한 가치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것이라고 했다.

42.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갑의 생산자이익은 700원, 을의 생산자이익은 500원, 병의 생산자이익은 200원이다. 즉, 갑의 생산자이익 700원은 을과 병의 생산자이익을 합한 것과 같다.

43. [출제의도] 개념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장 가격일 때 생산자이익은 삼각형 CFG이다. 그런데 상한가격이 설정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고 상품의 거래량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이익은 삼각형 BCE이다.

44.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감'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느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의 '-감'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45 ~ 47] 이경아, '킬러 T세포'

45. [출제의도] 설명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킬러 T세포에 주목하여 여러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이론을 보완한 새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킬러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유사한 기능을 하는 킬러 T세포와 헬퍼 T세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4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중 킬러 T세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킬러 T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①이 가장 적절하다.

4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II]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이다. 이 경우의 '캘티드'는 바이러스 단백질이 분해되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 바이러스가 그대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I]은 정상 세포이므로 그 안에는 자기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MHC가 이동시킨 캘티드는 자기 단백질이 분해된 것이다. ⑤ [I], [II]의 TCR은 MHC와 캘티드의 결합 구조를 인식하여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판별한다.

[48 ~ 50] (언어) 전해영, '국어에 나타나는 남녀 차이'

48. [출제의도]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은 우리말에 반영된 남녀 차이와 차별, 둘째 문단은 지칭어에 반영된 차이와 차별, 셋째 문단은 표현에 반영된 차이와 차별, 넷째 문단은 남녀차별이 없는 사회상에 대한 기대를 각각 중심 화제로 구성되었으므로 전체의 중심 화제는 ③이 적절하다.

4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끝 문단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바뀌면 그 결과가 언어에 반영된다고 했으므로 ⑤는 주중(主從)이 바뀐 반응이다. 첫째, 셋째 문단 끝에서 ①을, 셋째 문단의 부정적 묘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③을, 차이와 차별을 언급한 부분들에서 ④를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아버지, 어머니'와는 다른, 화자의 성별에 따른 대등한 지칭어이므로 차이가 반영된 표현이다.

5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남녀평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증성적 표현을 예로 제시하였다. ①은 처녀의 순결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순서의 개념만 포함하도록 고쳤고, ②는 남성이나 여성을 의미하는 특정 표현을 배제하였으며, ④는 좋지 않은 것에 여성을 관련시켜서, ⑤는 좋은 것에 남자를 관련시켜서 각각 고친 것이다. 그러나 ③은 직업을 제시하는 어감을 가진 말을 미화시킨 것이므로 적절한 예가 아니다.